

보림회 28년간 토요 철야정진

“북한산 관동도로 추진 반대”



**백봉 김기추거사 제자들
청년들도 동참...회원 120명
여름-겨울 일주일 용맹정진**

백봉 김기추거사



매주 주말마다 철야정진을 갖는 보림회 회원들. 이들이 있기에 재가불교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14일 오후 5시 서울 정릉 산자락에 위치한 보림사 선방. 30여명의 재가 불자들이 故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법문을 1시간 가량 들은 후 입정에 들었다. 백봉 거사의 유일한 출가 제자인 보림사 회주 목산스님의 지도하에 참선정진은 새벽 4시까지 계속된다. 40대의 장년층 거사와 보살에서부터 70대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50분 정진, 10분 휴식으로 진행되는 좌선의 깊은 몸동작은 흐트러짐이 없다.

백봉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회장 이수영)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주말 철야정진을 해 온 지는 어언 28년. 여름, 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역시 무려 55회째를 맞이해 재가 수행의 모범이 되고 있다.

30여년간 매 주 철야정진을 해 온 전근홍 총무는 “너와 내가 비었는 데 말하는 자는 무엇이든 듣는 자는

무엇인가? 만약 오늘 일을 논의하면 문득 옛 때 사람을 잊으리”라는 스승님의 보림삼관(寶林三關)의 빛을 하나하나 열어 나가면 단련 마음이 열리고 눈에서 분별의 비늘이 떨어지며 망상을 놓아 참다운 자유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말했다.

보림회는 이러한 오랜 수행이력을 바탕으로 27일 오후 8시부터 내달 2일 오전 7시까지 제 55회 철야 용맹정진을 갖고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120명의 보림회 회원들은 산청(본원) 지리산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 정릉 보림사에서 주말을 이용해 각각 정진하는 한편 백봉 거사의 거사풍(居士風)을 전하고 있다. 백봉, 유마 거사의 가르침에 따라 힘 없고 병든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과 비웃는 모든 사람들이 아집과 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의 길에 친절한 안내인이 되고자 말없이 정진

하는 것이다.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백봉 거사는 외로이 독립운동을 하던 암울한 시대를 뒤로한 56세에 불교를 만나 ‘무자(無字) 화두로 정진하던 중 6개월만에(1963년 1월) 새벽 종지를 소리내어 외창대(齋堂)를 울리며 우리시대의 도인이었다.

1965년 서울에서 ‘보림회’를 결성한 후 각계 각층의 재가불자들에게 금강경을 설법함으로써 우리나라 불교계에 거사풍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며, 1969년에는 총남 대덕군 죽동에 ‘보림선원’을 개창한 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유마경을 설하는 등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조계종 환경위-봉선사
도로공사 “7천억원 절감”

북한산국립공원 내 도봉산쪽에 거대한 터널을 뚫을 것인지, 아니면 국립공원을 침범하지 않고 10km 이상을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과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일연스님)가 터널 반대운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가운데 송추~의정부 구간 공사를 남겨두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측은 도봉산쪽 사패산 아래에 길이 4.6km, 왕복 8차선의 터널을 뚫어 순환도로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계종과 ‘북한산국립공원 관동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의 20여개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이 갖는 상징성 자체가 중요하고 국립공원 생태계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며 “국

립공원을 뚫고 지나가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공사 측은 “도로가 우회할 경우 7천억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보상 등으로 인해 공사가 더 늦어진다”며 “국립공원 훼손은 피할 수 있지만 전체 산림훼손 면적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터널을 짓되 터널 양쪽 입구 6백m~1km는 도로 건설 후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나무를 심을 것을 도공측에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국립공원의 경관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이 방안도 약 1천억원이 더 필요해 도공측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의 중재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봉선사를 비롯 회포사, 망월사, 원각사 등 관동도로 인근사찰, 비롯 환경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특정종교의 전도사업으로 오인받고 있는 19년 국도번호의 십자가 표지판

십자가 도로표지판

영동-무주간 국도번호
영동경찰서가 영동-무주간 19번 국도변에 설치한 ‘교통사고 사망지점’ 표지판 7개에 붉은 십자가가 대형으로 그려져 있어 불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성양원(원장 김영택)과 조계종 종교권향대책위(위원장 양산)가 최근 ‘영동경찰서가 특정종교의 전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영동경찰서는 “특정종교를 위한 전도의 목적이 아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영동군청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수재민 돕기나선 은평복지관

무료세탁 서비스
은평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윤)이 14일 서울 전역에 흩어진 폭우로 수해를 당한 은평구 주민 돕기를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이 16일 불광 1, 2동 등 은평구 수재지역에 자원봉사자를 급파하고, 흉물들에 뒤범벅된 옷이나 이불 등을 수거해 무료세탁 서비스를 실시한 것. 특히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노숙자쉼터 ‘희망의 집’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3명이 무보수로 일해 혼란한 인정미를 보였다. 이들은 복지관 지하실에 마련된 ‘홍길동 빨래방 센터’에서 서울과 경기도

탐골공원 성역화 ‘취소’

원각사지 확장 조사도 불투명
서울시는 최근 “시가 추진하던 탐골공원 성역화 사업을 전면 취소한다”는 사업 변경 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서울시 공원녹지과는 “성역화 사업으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성역화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며 “성역화 사업 대신 최소한의 공원 재정비 사업만을 새로 마련해 문화재청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초석과 유구 등 원각사지 유물이 남아있는 토층에 대한 추가 발굴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탐골공원 내 원각사지 확장 시굴조사도 함께 취소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사업 취소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마음고인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교묘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교계 화장비율 기독교보다 낮다

서울시 1494명 조사
10명중 6명 화장 선호
서울시가 6월 한 달간 전국 시립 화장 시설을 이용한 유가족 1천49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화장된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가 3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교(27.6%), 천주교(12.2%)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에서 ‘종수지리를 믿는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기독교인은 33.8%인 반면 불자는 69%인 것으로 나타나, 불교계의 실제 화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는 불교계에 화장 홍보를 전담하는 단체가 없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나눔실천회가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화장장을 권장하고 있지만, 장기기증 캠페인에 더욱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계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는 처음으로 경남지방경찰청이 19일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경남지방경찰청 ‘문화재지킴이’ 발족

12일 서울에 이어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성락식)이 19일 경남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지방 경찰청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성락식 경남지방경찰청장,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 쌍계사 주지 통광스님, 최철규 경상남도 문화관광국장, 조영제 국립경상대 박물관장, 비문 경찰청 및 도내에서 선발된 279명의 문화재 지킴이 요원 등 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조영제 박물관장을 비롯한 3명을 경남지방경찰청 문화재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문화재 지킴이는 문화재 관련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을 하나로 묶는 다원적 수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전통 사찰 89개소와 관광 파출소간 범범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하고 활동하게 된다. 천희희 기자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의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촉감이 매우 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복: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삼: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방: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춘추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하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장삼	조계종		200,000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小		23,000
바랑			30,000

※ 사이즈별론 다양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사: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용B/D 3F 302호
전화: 053)764-4114 011-9850-440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흥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입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필라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격: 450x450mm

◎ 보급가: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전)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하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들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복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강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평화롭게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